

스포츠로서 에어로빅운동의 특성(5)

임변장

스포츠(Sport)의 정의

스포츠라는 현상은 비록 놀이(Play)나 게임(Games)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놀이나 게임과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느 무엇보다도 항상 신체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의 신체 운동적 측면은 결코 스포츠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절대적 요소이며, 이의 결여, 즉 신체활동이 빠진 인간의 활동은 스포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enyon의 정의

영국출신으로서 캐나다 및 미국에서 활동한 스포츠사회학의 시조 가운데 한사람인 Kenyon(1974)은 스포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총체로서의 신체활동”

스포츠라는 인간의 활동은 놀이와 게임에 비하여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층 체계적으로 고안해낸 활동이어서, 고도로 조직성을 띤 경쟁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조직성이란 인간이 필요성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활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참가 개체를 모아서 집합체를 이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활동이 신체의 어느 일부만을 구사하는 신체적 동작이나 운동에 그치는 활동이 아니고, 인간의 전 행위가 동원된 전신 운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적 운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활동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Lawther의 정의

미국의 스포츠심리학자인 Lawther(1972)는 스포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쾌감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활동 그 자체를 추구하며, 또한 보편적으로 일정의 전통적인 형태, 혹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다소 활발한 신체활동.”

다시 말해서 Lawther는 스포츠를 문화적 산물이며, 놀이의 한 유형으로서, 놀이의 한 특수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Ibrahim의 정의

미국의 스포츠사회학자인 Ibrahim(1975)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스포츠의 명목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스포츠는 인간 표현의 한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신체적 놀이로부터 유래하며, 문화적으로 특정 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간의 기본적인 여가 활동이다. 스포츠의 목표는 미리 동의한, 따라서 중재(仲裁)되어지는 일련의 규칙을 통한 경쟁적인 상황에서 획득된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란 허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현실생활과 분리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 내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체험 세계이고, 그 결과(승패)를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서 통제되며, 결과(승패)는 전술과 결합된 신체기능과 신체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쟁으로서, 인간의 한 표현 활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재(仲裁)되어지는 규칙이란 경쟁의 당사자 간 또는 조직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실적으로 흔히 개인으로서는 심판, 그리고 집합적으로는 심판위원회라고 부른다. 또한 스포츠의 목표라는 것은 스포츠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 활동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포츠는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경쟁을 겨루는 인간의 신체활동이라는 것이다.

(임변장. 1979. 스포츠 및 그 유사개념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고찰. 사대 논총 제19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pp.255-268).